

2021 새해 새 설계

문인 광주 북구청장

“드론·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박차”

코로나 위기속 예산 1조원 성과 임동·광주역 도시재생 속도 생활SOC복합화 차질 없이 추진



“북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심 자치구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은 24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착실히 검토하고 보완해 북구만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2021년 구정 각오를 밝혔다.

문 구청장은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들어 북구가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90회 수상에 1110억 원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수상 실적 중 대통령상 4회, 국무총리상 4회를 수상하면서 광주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상을 받는 성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획득한 상사업비는 주민 편의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402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점도 문 청장의 노력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문 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감염 피해 최소화해 힘썼다.

광주시 최초로 승차진료소를 운영하고 자가 격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더불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불품지원 등 코로나19에 빈틈 없이 대응했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운영되는 산업단지방역센터와 생활방역단 등을 운영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임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사회취약계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에도 힘썼다.

그 결과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북구형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총 2204곳에 9억 7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문 구청장은 경제중합지원센터를 필두로 산학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 융합미 니클러스터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드론과 인공지능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광주시 등 각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북구가 선도하겠다는 게 문 구청장의 구상이다.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2023년까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주역 일원을 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통해 젊은이들이 모여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 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정렬한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청사진도 빼놓지 않았다.

2022년까지 예정인 5개의 생활SOC복합화사업과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고 구정의 모든 업무를 구민과 소통 해 부패와 특권이 없는 청렴한 북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한국판뉴딜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을 슬기롭게 활용해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인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트로 실버 도우미 마스크 착용 캠페인 메트로 실버도우미로 활동 중인 광주 동구·서구·광산시니어클럽의 한 회원이 최근 광주도시철도 내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계도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메트로 실버도우미’ 사업은 올 연말까지 총 324명의 실버 인력을 배치해 광주도시철도 각 역 사 시설물을 소독하고, 열차 승객들에게 다양한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시 보건환경연, 설 대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내달 10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미생물검사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축장 위생관리와 출하 가축에 대한 엄격한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도축현장에 도입한 신속검사 장비를 활용해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미생물검사 주기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광주시의 하루 평균 소 도축물량은 2019년 43두, 2020년 44두였으며,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각각 52두, 60두로 평소보다 17.3%, 26.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평상시 작업물량이 전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정 내 육류 소비의 증가와 축산물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오히려 물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선물세트의 판매 증가로 평상시보다 도축물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에는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선물하시기를 추천드린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든다

불의·불법·부도덕 행위 근절 시, 28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 만들기’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중인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 만들기는 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저해하는 불의·불법·부도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선한 시민이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시행할 추진과제는 불의·불법·부도덕 행위 근절과 나눔·연대 등 따뜻한 광주정신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공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근절 ▲많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범죄수익이 필요한 분야 ▲시민생활

속에서 불편, 불안 등을 초래하는 행위 근절 ▲나눔·연대 등 광주정신을 확산해 ‘의향 광주’를 상징하는 시책 등이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3명을 선발해 상금을 지급하고, 심사결과는 2월 중 발표한다.

아이디어 공모 참가자격은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bag463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검색해 참고하면 된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내용과 시청 부서에서 신규 발굴한 추진과제는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시행해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무상 지원 시농업기술센터 28일까지 접수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서 0.1ha 이상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오는 2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지역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약제는 3월 초 각 지역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농가에 배부될 예정이며, 배부 받은 농가는 개화기 전(3월 하순 ~ 4월 중)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약제 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법정금지병으로 주로 사과, 배에서 발생하며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28일까지 민주시민대학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대학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민대학은 광주시가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환경을 반영해 2019년 개설한 시민교육과정이다. 지난해엔 11개 단체가 참여해 14개의 참여·실천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참여·실습·실천·토론행, 역량강화 등 2개 분야 ▲참여민주주의활성화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 구현 ▲시민의식 향상 ▲인문소양 ▲공동체 시민리더 ▲환경과학·미래학 ▲민주시민활동가 역량강화 등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주입식 강의를 탈피해 참여·토론·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민주시민들의

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선보였던 ▲환경 파괴 심각성 인식과 생태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민남의 원탁’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연극으로 풀어낸 ‘민주대성회’와 같은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 선정을 확대하고 비중을 늘린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또 참여단체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를 운영하며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8일까지 광주시 민주시민권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싼 땅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
-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로얄(34)방3	4,890	3,4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